

원저

標本 根結 氣街의 定義와 鍼灸治療적 적용에 관한 연구

조영욱 · 조현석 · 황민섭 · 김갑성 · 이승덕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Definition and Acupuncture Treatment of Biaoben(標本), Geungyul(根結) and Kika(氣街)

Jo Young-wook, Jo Hyun-seog, Hwang Min-seob, Kim Kap-sung and Lee Seung-deok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is present studies of Definition and Acupuncture Treatment of Biaoben(標本), Geungyul(根結) and kika(氣街).

Methods : We studied oriental medical books and journal related with Biaoben(標本), Geungyul(根結) and kika(氣街).

Results & Conclusions : 1. Theory of Biaoben(標本), Geungyul(根結) and kika(氣街) is a ground of remote acupuncture point needling.

2. Ben(本) and Geun(根) at distal part of limbs have effect a disease of haed, face, chest and back.

Key words : Biaoben(標本), Geungyul(根結), Kika(氣街), Acupuncture

I. 緒 論

經絡은 생명활동의 중요한 에너지인 氣血을 순행시키는 통로이다. 經絡은 內部에서는 臟腑를 두르고 外部로는 體表에 분포되어 氣血을 전신에 순

행시켜 生體의 恒常성을 유지하고 있다. 병이 일어나면 氣血의 흐름이 정체하는 곳, 정체하기 쉬운 곳이 經穴로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을 나타내는 經穴 혹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穴을 자극(補·瀉)함으로써 疾病을 치료하는 것이 鍼灸治療의 근본원리이다.¹⁾

· 접수 : 2005년 1월 22일 · 수정 : 2005년 1월 26일 · 채택 : 2005년 1월 29일
· 교신저자 : 이승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37-21번지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침구과
Tel. 02-3416-9639 E-mail : chuckman@dongguk.edu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는 것 중에 標本·根結·氣街의 이론이 있다.

根結은 經脈循行의 兩極이 相連된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根은 經脈이 四肢에서 循行會合하는 根源이고 結은 經脈이 頭胸腹部에서 循行流注하는 歸結로 經脈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標本은 經氣가 집중되고 확산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本은 經氣가 匯取하는 중심이고 標는 經氣가 확산하는 구역으로 經脈脈氣의 확산반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氣街는 經氣가 순행하고 모이는 頭·胸·腹與背·脛部位를 말한다.

이들 이론은 經氣의 內外·上下의 상호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頭·面·胸·腹部와 四肢末端에 있는 腧穴이 상호 영향을 미쳐 經氣가 연결되는 遠隔部位의 질환에도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현재 침구 임상에 쓰이고 있는 여러 침구치료법 및 배혈법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標本·根結·氣街의 정의와 이것이 침구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및 考察

1. 標本 · 根結 · 氣街의 意味

1) 標本の 意味

標와 本은 서로 相對的 意味를 갖는 용어로서 寶漢卿²⁾은 標本을 ① 天地陰陽의 標本 ② 傳病의 標本 ③ 人身의 外(標)·內(本) ④ 陽腑(標)·陰臟(本) ⑤ 臟腑在內爲本·經脈在外爲標 ⑥ 六經(手足三陰·三陽)의 標本으로서 區分하였으며 靈樞·病本篇³⁾에서는 標와 本을 잘 알고서 治療하면 餘症이 다 낫는다고 하였으며 素問·標本病傳論³⁾에서도 病에 標와 本이 있다고 하여 枝葉의 病症인 標와 根本病症인 本을 正確히 分別하여 治療하면 至大한 效果를 올릴 수 있다고 하여 病機의 進退輕重, 治療의 順序 輕重緩急에 對한 標와 本의 意味를 說明하고 있다.

內經·衛氣篇³⁾과 太素·經脈標本篇⁴⁾를 중심으로 十二經脈의 標本の 部位와 구체적 혈위를 圖表로서 整理한 것이 <표1>이고, 그 內容을 要約하면 ① 十二經脈의 本部는 四肢肘膝以下의 部位에 있고 ② 六陽經脈의 標部는 모두 頭面部에 있고 六陰經脈의 標部는 大部分 해당 經脈의 胸部 募穴 혹은 背部 俞穴 部位인 것을 알 수 있다.

鍼灸學에서 關係되는 十二經에서 標本の 概念은 輸穴의 位置 또는 經脈의 分布에 따른 上下·內外의 部位的 區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人體에서 一般的으로 標는 末稍를, 本은 根本을 意味하는 것이며 末稍와 根本은 上下의 區分으로 標는 上, 本은 下로서의 意味가 있어 人體의 頭部 胸應部背部 腹部는 標部로서 上(高)의 位置에, 四肢末端은 本部로서 下(低)의 位置에 있으며 그 方向은 四肢末端에서 頭面部와 軀幹을 向하고 있다.

표 1. 十二經의 標本⁵⁾

	本		標	
	部位	穴位	部位	穴位
足太陽	在跟以上五寸中	附陽	兩絡命門, 命門者, 目也	睛明
足少陽	在窺陰之間	窺陰	在窓籠之前, 窓籠者, 耳也	聽宮
足陽明	在厲兌	厲兌	在人迎, 頰夾頰也	人迎
足太陰	在中封前上四寸之中	疑是三陰交	在背腧與舌本也	脾俞, 廉泉
足少陰	在內踝上下三寸中	交信	在背腧與舌下兩脈也	腎俞, 廉泉
足厥陰	在行間上五寸所	疑是中封	在背腧也	肝俞
手太陽	在外踝之後	疑養老	在命門之一寸也	懸樞(惑攢竹)
手少陽	在小指次指之間上二寸	臑門	在耳後上角下外眥也	絲竹空
手陽明	在肘臂中上至別陽	曲池	在頰下合鉗上也	疑是頭維
手太陰	在寸口之中	太淵	在腋內動脈也	中府
手少陰	在銳骨之端	神門	在背腧也	心俞
手厥陰	掌後兩筋之間二寸中	內關	在腋下三寸也	天池

2) 根結의 意味

楊上善⁴⁾은 奇邪와 外邪로 인한 질병을 治療하는데 經脈의 所根 所結을 모르면 그 治療는 어려우며, “根, 本也. 結, 繫也”라 하여 根本과 歸結의 意味라 하였고 張志聰³⁾은 “根者, 經氣相合而始生. 結者, 經氣相將而歸結. 根結者, 六氣合六經之本標”이라 하였고, 馬元台³⁾는 “脈氣所起爲根, 所歸爲結”이라 하였으며 任應秋⁷⁾는 四肢는 下部에 位置하여 根이 되고 經氣의 源이 되며 頭身은 上部에 位置하여 結이 되어 經氣에 流가 된다고 하였으며 張介賓⁸⁾은 “下者爲根, 上者爲結”이라 하였고 手三陰經의 根結과 手三陽經의 結이 없는 것에 대해 萬物之氣가 모두 地로부터 나와서 升하고 腰以上은 天이고 腰以下는 地이고 足經은 經脈의 經氣가 足에서 頭까지 通身上下하는 것을 말하므로 手經은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다시 말할 必要가 없으며 足六經의 根結의 說明으로서 手六經은 說明하지 않아도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竇漢卿²⁾은 經脈의 根結이 四根三結이라 하여 手足六經의 四肢末端을 根으로 四根이라 稱하고 頭·胸·腹部의 三部에 結하므로 三結이라 稱하였다.

靈樞·根結篇³⁾, 素問·陰陽離合論³⁾을 중심으로 도표로 정리한 것이 <표2>이며, 內容을 요약하면 ① 足六經의 根은 四肢末端井穴로서 肘膝

關節以下에 있다고 할 것이며 ② 足三陽經의 結은 頭面에, 足三陰經의 結은 胸腹部에 있다는 것이며 ③ 靈樞·根結篇 하단에 手足六陽經의 根類注入의 內容이 있어서 手三陽의 根은 미루어 알 수 있다.

즉 鍼灸學에서 根結은 主로 經氣가 循行하는 兩端이 相連하고 經氣가 流注하는 情況을 說明하는데, 根은 四肢末端의 井穴을 結은 頭·胸·腹의 軀幹의 一定한 身體區域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방향은 四肢末端에서 頭胸部의 體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氣街의 意味

인체내 氣의 運行經路로 氣는 經絡을 循行하는 腠理之間의 眞氣이고, 街는 四通八達의 通路를 말한다. 靈樞·動輸篇³⁾에서 “四街者, 氣之徑路也라.”고 하였으며, 靈樞·衛氣篇³⁾은 “知六府之氣街者, 能知解結契紹于門戶”이며 “胸氣有街, 腹氣有街, 頭氣有街, 脛氣有街”라 하였다. 十二經脈의 脈氣는 全身의 軀幹과 四肢에 分布되어 있는데, 經氣가 集中해서 流通되는 部位인 頭, 胸, 腹與背 脛部位를 氣街라 말한다. 즉 氣街는 經絡作用이 頭·胸·腹·脛의 四部位로 集中流通되고 있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4) 標本 根結 氣街의 綜合的 意味

標本과 根結의 關係를 보면 四肢는 根, 本이며 頭身部는 結, 表이다. 차이점은 部位에서 根結의 범위보다 標本の 범위가 더 광범위하며, 標本은 十二經 모두에서 구체적 論述이 있으나 根結은 足六經으로 대표했으며, 根은 井穴, 本은 肘膝以下の 일정부위이고, 結은 頭·胸·腹부위에 있고 標는 頭胸腹부위이외에 또한 背俞의 부위가 있다. 氣街는 人體를 上·中上·中下·下部의 四部分으로 區分했으며 上·中上·中下는 標本, 根結중의 標와 結의 범위에, 下部는 根과 本の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2. 經絡元氣와 內臟 및 腧穴과의 關係

標本 根結 氣街를 통해 四肢의 肘膝이하부분이 頭面과 軀幹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十二經의 根結⁵⁾

	靈樞·根結		素問·陰陽離合論		根部 穴位	結部 穴位
	根	結	根	結		
足太陽	根于至陰	結于命門, 命門者目也	根起于至陰	結于命門	至陰	睛明
足少陽	根于竅陰	結于窓籠, 窓籠者, 耳中也	根起于竅陰		竅陰	聽宮
足陽明	根于厲兌	結于頰大, 頰大者, 鉗耳也	根起于厲兌		厲兌	頭維
足太陰	根于隱白	結于太倉	根起于隱白		隱白	中脘
足少陰	根于湧泉	結于廉泉	根起于湧泉		湧泉	廉泉
足厥陰	根于大敦	結于玉英, 絡于臍中	根起于大敦		大敦	玉堂
手太陽	根于少澤				少澤	
手少陽	根于關衝				關衝	
手陽明	根于商陽				商陽	

따라서 根, 本부분이 어떻게 標, 結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 原穴

陸瘦燕⁹⁾은 이것은 經絡의 元氣와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또한 原穴과의 關係를 결부시켜 생각 하여야만 그 의미를 明確히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靈樞·九鍼十二原篇³⁾은 “五臟有六腑, 六腑有十二原, 十二原出於四關, 四關主治五臟.”이라고 하고, 難經·六十六難¹⁰⁾은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腑. 原者, 三焦之尊號也, 故所止輒爲原. 五臟六腑之有病者, 皆取其原也.”라 하였다.

이를 綜合하면 臍下腎間動氣인 原氣는 元氣의 別使인 三焦로 가서 五臟六腑를 경유하여 각 臟腑의 元氣가 된다. 臟腑元氣는 각 臟腑의 十二原穴이 所屬된 四關 즉 四肢의 肘膝關節以下에 나타나므로, 四關은 五臟經絡의 元氣를 받는 곳으로 解釋할 수 있다. 즉 經脈의 元氣는 안으로는 生氣之元으로서 生命의 根本이 되는 이외에 각 臟腑經脈의 元氣는 그 作用이 代表的으로 나타나는 十二原穴이 소재한 四肢肘膝以下の 四關에 反映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十二經脈의 本部和 足三陰·足三陽의 根部가 모두 四肢末端에서 出한다는 關係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腹募背腧穴

經絡의 元氣가 臟腑에 미치는 영향관계도 標本 根結의 이론에서 알 수 있다.

六陰經脈의 標部는 모두 胸部의 募穴 혹은 背部의 俞穴에 있다는 것은 靈樞·背俞篇³⁾의 “五臟之俞出于背”, 張介賓의 “五臟居于腹中, 其脈氣俱出背於足太陽經”, 李東垣의 “凡治腹之募, 皆爲元氣不足”라는 주장에서 論據를 찾을 수 있다. 背俞穴은 五臟之氣가 注輸하여 所出하는 곳이니 陰經의 經絡元氣가 四肢本부로부터 해당 本臟에 作用한 후에 足太陽經의 背俞穴에 注輸하여 나온 것이며, 募穴은 臟腑之元氣가 募聚하는 곳으로, 元氣가 해당 本臟에 作用한 후에 五臟의 募

穴에 募聚한 것이다. 靈樞·九鍼十二原³⁾에서 “十二原者, 五臟之所以稟受三百六十五節氣味也”라 하였는데 이는 五臟에 所屬된 十二原穴이 나오는 곳인 四關部位가 六陰經脈의 本부가 있는 곳이며 五臟이 所屬된 經脈의 元氣를 받는 곳이 된다는 것이다. 六腑의 背俞穴도 五臟의 背俞穴과 같이 六腑之氣가 六腑에 作用한 후 六腑之氣가 注輸·所出하는 곳이다. 靈樞·衛氣篇³⁾에서 “氣在胸者 止之應與背俞 氣在腹者 止之背俞”라 하여 背俞穴이 五臟의 俞穴뿐만 아니라 동시에 六腑의 俞穴과 胸腹腔內의 餘他 器官의 腧俞, 關元俞 등도 포괄하며, 또한 六腑의 募穴도 五臟의 募穴과 같이 六腑之氣가 六腑에 作用한 후 六腑의 募穴에 募取하는 곳이란 것을 설명하고 있다.

표 3. 十二經의 原, 腹募, 背俞穴

經絡	原	募	背俞
手太陰肺經	太淵	中府	肺俞
手陽明大腸經	合谷	天樞	大腸俞
足陽明胃經	衝陽	中脘	胃俞
足太陰脾經	太白	章門	脾俞
手少陰心經	神門	巨闕	心俞
手太陽小腸經	腕骨	關元	小腸俞
足太陽膀胱經	京骨	中極	膀胱俞
足少陰腎經	太谿	京門	腎俞
手厥陰心包經	大陵	膻中	厥陰俞
手少陽三焦經	陽池	石門	三焦俞
足少陽膽經	丘墟	日月	膽俞
足厥陰肝經	太衝	期門	肝俞

3) 六腑下合穴

標本 根結 이론의 또 다른 특징은 手足陽經의 標部가 모두 頭面部에 있다는 것이며 이는 六陽經脈의 元氣가 직접 해당 本腑에 作用할 수 없으며, 단지 頭面등의 經絡 循行處에서 發生하는 증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六腑와 經脈元氣의 關係를 靈樞·本輸篇³⁾과 太素·腑病合論⁴⁾에서 “六腑皆出足之三陽, 上合于手”, “大腸, 小腸皆屬于胃, 胃足陽明也”, “三焦者 ……太陽之別也”라 하였는데 이는 大腸과 小腸은 足陽明之氣를, 三焦는 足太陽之氣를 각각 別入處에서 받은 후 위

로 大腸은 大腸經, 小腸은 小腸經, 三焦는 三焦經으로 합해서 本經의 肢端에서 出하는 經絡元氣와 相合하여 標部(頭面)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六腑之氣가 足三陽經에서 別入하는 場所를 六腑下合穴<표4>이라 하는데 靈樞·邪氣藏府病形編³⁾에서 “余聞五藏六府之氣, 榮輸所入爲合, …… 陽脈之別 入于內 屬于府者”라고 하여 六腑之氣가 모두 足陽明, 足少陽, 足太陽의 三經에서 出發하여 合穴處에서 별도로 內府에 입하고 그

표 4. 六腑之下合穴表

六經	合穴名	經絡名
胃	三里(足)	足陽明
大腸	上巨虛	足陽明
小腸	下巨虛	足陽明
膀胱	委中	足太陽
三焦	委陽	足太陽
膽	陽陵泉	足少陽

중 大腸 小腸 三焦의 三腑之氣는 다시 위로 手三陽經의 해당 經에 合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五腧穴

十二經脈은 四肢의 肘膝以下에 各各 井榮輸經合의 五個 特定 腧穴이 있는데 이를 五腧穴 <표5>이라고 하는데 靈樞·九鍼十二原³⁾에는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腧, 所行爲經, 所入爲合”이라고 하여 十二經脈의 氣血循環을 水流에 比較하였고, 그 脈氣는 小에서 大로, 淺에서 深으로, 遠에서 近으로 흐른다. 그 穴位는 四肢爪甲之側으로부터 肘膝關節附近에 位置하고 있다. 五腧穴의 脈氣流注는 陰經·陽經을 不門하고 모두 四肢末端에서 起하여 上을 向하여 점점 深入하며 水流의 흐름에 比較되어 從小到大, 由淺入深으로 되고 있다.

또 靈樞·根結篇³⁾에는 手足六陽經의 根·溜·注·入腧穴說이 있는데 요약하여 도표를 만들면 <표6>와 같다.

여기에서 根은 모두 井穴이고, 溜는 手太陽經

의 陽谷만 經穴이고 나머지는 모두 原穴이고, 注는 三里, 小海의 合穴을 除外하면 餘他는 經穴이며 入은 前部の 穴은 頸項部の 腧穴이고, 後部の 穴은 전부 絡穴이다. 이는 四肢末端에서 起始한 脈氣가 점차 上部로 향하여 深入하면서 四肢肘膝關節이하로 영향을 미치거나 標·結部位인 頸項部に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넓은 意味로는 五腧穴과 標·結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五腧穴과 根溜注入 腧穴說은 元氣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十二經의 五俞穴

經絡	井	榮	俞	經	合
手太陰肺經	少商	魚際	太淵	經渠	尺澤
手陽明大腸經	商陽	二間	三間	陽谿	曲池
足陽明胃經	厲兌	內庭	陷谷	解谿	足三里
足太陰脾經	隱白	大都	太白	商丘	陰陵泉
手少陰心經	少衝	少府	神門	靈道	少海
手太陽小腸經	少澤	前谷	後谿	陽谷	小海
足太陽膀胱經	至陰	足通谷	束骨	崑崙	委中
足少陰腎經	湧泉	然谷	太谿	復溜	陰谷
手厥陰心包經	中衝	勞宮	大陵	間使	曲澤
手少陽三焦經	關衝	液門	中渚	支溝	天井
足少陽膽經	足竅陰	俠谿	足臨泣	陽輔	陽陵泉
足厥陰肝經	大敦	行間	太衝	中封	曲泉

표 6. 六陽經의 根溜注入表

經名	根	溜	注	入		
足三陽 手三陽	足太陽	至陰	京骨	崑崙	天柱	飛陽
	足少陽	竅陰	丘墟	陽輔	天容	光明
	足陽明	厲兌	衝陽	足三里	入迎	豐隆
	手太陽	少澤	陽谷	小海	天窓	支正
	手少陽	關衝	陽池	支溝	天?	外關
	手陽明	商陽	合谷	陽谷	扶突	偏歷

5) 綜合的 意味

이상 논술한 經絡元氣와 臟腑腧穴의 關係를 요약하면 ① 生氣之原은 十二經의 근본이고 十

二經脈의 元氣이며 모두 先天的으로 받아서 생하는 것이다 ② 十二經脈 元氣의 作用은 肢端으로부터 軀干 內臟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手足三陰經脈의 元氣는 肢端으로부터 직접 本臟(五臟)에 작용하고 난 후에 背部 五臟의 腧穴에 輸注하여 出하며 또 五臟의 募穴에 募取한다. 또 足三陰經의 元氣는 頭 面 軀幹部와 經脈循行 所過處에 作用하며 一部分의 脈氣는 合穴處에서 別途로 內腑에 入하여 六腑와 상통한 후 背部 六腑의 腧穴에 注輸하여 出하고 六腑의 募穴에 募取한다. 그러나 手三陽經의 元氣는 該當 本部에 深入하지 못하고 頭·面·軀幹部와 循行 所過處에만 作用하고 該當 本部의 氣는 모두 足三陰經의 合穴處에서 別途로 內腑에 入하고 난 후 上으로 手部의 本經에 合하는 것이다. 또한 四肢의 本이라는 범위는 五腧穴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肘膝以下의 輸血 즉 原穴, 絡穴, 郄穴, 六腑下合穴, 八脈交會穴등이 모두 本의 범위에 개괄되는 것이다. 따라서 四肢 肘膝以下部位의 輸血은 그 經穴이 소재하는 部位의 국부질환을 主治할 뿐 아니라 頭·面, 胸·腹, 背部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3. 鍼灸治療의 應用

1) 腧穴의 主治效能

十二經脈에 소속된 各 腧穴의 主治效能은 일반적으로 腧穴의 근처 部位를 치료하는 近部(局部)主治와 穴로부터 멀리 떨어진 部位를 치료하는 遠部(遠距離)主治의 두가지 效能을 갖고 있다.⁹⁾ 모든 經穴들은 각각 局部主治의 效能을 갖고 있으며 또 四肢肘膝關節以下(四關)의 腧穴은 특히 遠部主治를 갖고 있다. 이를 陰·陽經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六陰經脈의 主治效能

六陰經脈의 肘膝以下의 穴位는 일반적으로 該當本臟病을 능히 치료할 수 있으며 背俞穴은 臟腑의 氣가 注輸所出하는 곳이고 募穴은 臟腑之氣가 結聚하는 곳이므로 經絡元氣와 상관이 있어 背俞·胸募穴은 소속 臟腑器官의 疾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靈樞·壽夭剛柔篇³⁾에서

“病在陰之陰者 刺陰之榮輸”라 하였는데 이는 腹內는 陰이고 五臟은 陰中之陰이므로 五臟有病에는 반드시 陰經의 榮穴 혹은 輸穴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陰經은 原穴을 輸로 代身하고 十二原은 五臟이 票氣하는 所在이므로 臟病에는 일반적으로 俞穴을 使用한다.

② 六陽經脈의 主治效能

六陽經脈중 手三陽經의 肘以下穴位와 足三陽의 膝以下의 俞穴은 모두 해당되는 腑病을 치료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頭面病만 치료한다. 그러나 足三陽經의 膝以下穴位 중 ‘六腑之下合穴’만이 六腑病을 能히 치료할 수 있다. 이는 手足三陽經의 本은 四肢에 있고 標는 頭面에 있어 經絡元氣의 작용 방향은 肢端으로부터 頭面に 미치고 手三陽經의 元氣는 內腑에 不入하므로 그 腧穴은 本腑病을 治할 수 없다. 그러나 六腑之氣는 모두 足三陽經상에서 出하는데 足三陽의 本部에서 나온 經絡元氣는 六腑之合을 경과하여 별도로 內腑에 入하므로 足三陽經 膝以下의 一部穴이 六腑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靈樞·邪氣臟腑病形論篇³⁾에서 “榮輸治外經合治內腑”라 하였다. 즉 六陽經脈의 循行하는 所過處의 外經疾病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해당 경락의 榮穴과 腧穴을 取해야 하며, 六腑之病을 治할 때는 六腑之下合穴을 取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耳는 手太陽, 少陽經脈의 所過이므로 耳病을 치료할 때 먼저 聽宮, 聽會, 翳風 같은 이의 局部穴뿐만 아니라 手太陽經의 前谷(榮), 後鵝(俞), 手少陽經의 液門(榮), 中渚(俞)穴을 배합하여 應用하며, 또 鼻病과 口齒病에는 口鼻의 局部穴뿐만 아니라 手陽明經의 二間(榮), 三間(俞)穴을 配合하여 使用할 수 있다. 六腑病을 치료시 胃病에는 足三里, 膽病은 陽陵泉, 大腸病은 上巨虛, 小腸病은 下巨虛, 膀胱病은 委中, 三焦病은 委陽穴을 各各 取할 수 있다. 또 六腑의 背俞穴과 募穴도 六腑之氣와의 상관이 있어 해당 腑病을 치료할 수 있다.

2) 藏病取俞 腑病取合의 處方配穴法

手足三陰·三陽經의 主治效能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臟腑病을 治療할 때 指針이 되는

藏病取俞 腑病取合³⁾의 處方配穴法이 이해될 수 있다. 이런 觀點의 配穴法을 素問·痺論³⁾의 臟腑痺病治療時 五臟有俞 六腑有合하고 素問·痿論³⁾의 五臟痿治療時 “各補其榮而通其俞”하고 素問·咳論³⁾의 咳嗽治療時 “治藏者治其俞, 治府者治其合”하는 治法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經絡元氣가 內臟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靈樞·官鍼篇³⁾에서는 “遠道刺者, 病在上, 取之下, 刺府腧也”라 하여 六腑下合穴을 利用하여 六腑病을 治療하는 方法을 遠道刺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素問·五常政大論³⁾의 “病在上 取之下 病在下取之上”하고 靈樞·終始篇³⁾의 “病在上者 下取之病在下者 高取之”하며, 張介賓⁸⁾의 “下肢足三陽을 取하여 上部病을 治한다”하며 竇漢卿²⁾의 “瀉絡遠鍼 頭有病 足上鍼”한다는 說은 모두 遠道刺法을 擴大解釋하여 肢體부위와 治療혈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四肢肘膝以下の 穴로서 頭身의 疾病을 治療하는 配穴法과 頭目的 穴로서 四肢病을 治療하는 處方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肘膝關節以下の 穴을 使用하는 五行鍼法 子午流注鍼法 靈龜八法 飛登八法 太極鍼法도 넓은 의미로서 遠道刺法에 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入江正¹¹⁾은 各表裏經의 原, 絡, 募穴을 十二經別의 治療에, 橋本正博¹²⁾은 十二經別의 治療에는 標本穴을, 十二經筋의 病症에는 根結穴을 各各 應用하여 鍼灸治療의 領域을 擴大하였다. 또 張登部¹³⁾는 遠道刺法의 應用으로 上下配穴法

表裏經配穴法, 俞募配穴法, 五腧穴과 六腑下合穴의 臨床應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遠道刺法의 구체적 예는 鍼灸大成의 諸賦와 諸哥에서 볼 수 있다. <표7>

또 여러 종류의 鍼刺法을 선택사용할 때 經絡元氣와의 關係가 깊은 臟腑의 募穴과 俞穴을 同用하는 ‘俞募配穴法’을 같이 使用하면 더욱더 治療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III. 結 論

標本 根結 氣街와 經氣의 作用을 綜合적으로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標本 根結 氣街의 이론은 經脈에서 四肢와 頭面, 軀幹의 밀접한 關係를 설명한 것으로 十二經脈의 本部, 足三陰·足三陽의 根部 및 氣街 중 經氣는 모두 四肢의 肘膝以下에 있고, 標部와 結部 및 氣街(胸氣, 腹氣, 頭氣)는 모두 頭面과 軀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四肢末端에서 頭面, 軀幹, 內臟에 영향을 주는 것은 十二經脈의 元氣의 作用을 통해 알 수 있다.
3. 四肢肘膝關節以下の 腧穴은 특히 遠部主治를 갖고 있는데 六陰經脈의 本臟病에는 해당 陰經脈의 原穴(俞穴), 背俞穴, 胸募穴을 使用할 수 있으며 六陽經脈의 本臟病에는 해당 陽經脈의 六腑下合穴, 背俞穴, 胸募穴을 使用할 수 있다.
4. 標本 根結 氣街의 이론에서 四肢 肘膝關節이하의 本部와 根部의 穴位는 그 穴位가 있는 부위의 疾病도 治療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頭, 面, 胸, 背部의 질환도 治療할 수 있는데 經脈과 臟腑가 밀접한 關係가 되고 經氣가 上下, 內外로 상응하고 있어서 四肢의 肘膝關節이하(本部, 根部)의 穴을 取穴, 刺鍼하여 遠位部(標部, 結部)에 발생한 疾病을 治療한다. 이는 鍼灸臨床에서 應用되고 있는 遠隔取穴과 局所取穴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표 7. 遠道刺法의 임상응용에

穴名	治療部位	穴과 部位關係	出典
風府	腿脚部	頭部穴로 四肢	肘後歌
魂門	筋掌骨痛	背部腧로 四肢	標幽賦
束骨 天柱	瘧病項強 多惡風	標本과 根結을 配合應用	百症賦
合谷 光明	睛明治眼 未動時	各經의 標本을 配合應用	席弘賦
列缺	頭項	四肢穴로 頭部	四總穴
委中	腰背	四肢穴로 腰背	四總穴哥

IV. 參考文獻

1.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95, 34.
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64~70.
3. 馬元台·張隱庵(註): 養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77.
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3: 155~160.
5. 장준혁·김경호: 標本·根結 이론과 임상응용에 관한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1; 12(2): 250-262.
6. 안창범, 김길환: 標本·根結·氣街·五輸穴과 經絡元氣와의 관계에 관한 高찰, 대한한의학회지. 1991; 12(2): 250-262.
7. 任應秋: 黃帝內經類析, 內蒙古,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115.
8. 張介賓: 類經, 서울, 書苑堂(重刊), 1977: 176~178, 180~185.
9. 吳紹德等: 陸瘦燕鍼灸論著醫案選,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18~51.
10. 葉霖: 難經正義,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14, 115~116.
11. 入江正: 經別·經筋·奇經療法, 日本, 醫這の日本社, 昭和五十九年: 48~134.
12. 橋本正博: 經別經筋治療, 日本, 醫道の日本, 1984; 7: 16-25, 12:52-54, 1985, 2: 21-23, 3: 41-43, 4: 38-41, 7: 42-45.
13. 張登部: 經脈根結標本特征 及 其臨床應用, 中國, 中醫雜誌, 1986; 3: 43-45.